

올어라! 그리고 부르짖어라!

선교단체 GO 대표 주누가 선교사



그에겐 뭔가가 있다. 얕은 물 소리가 아닌 깊은 울림 같은 것. 그의 설교에서는 언어적 유희를 찾아볼 수 없다. 때문에 언뜻 딱딱한 느낌을 갖게도 한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이미 훌쩍 개울물을 뛰어 넘어 건너편을 바라보는 안타까움이 가득 배어있다.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 결코 만만치 않은 나름의 투쟁이 있었을 것 같다.

“불 속이라도 들어가서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 열정이 있었습니다. 죽음, 두렵지 않았어요. 열심히 했죠. 그런데 힘들 더군요. 사람들이 잘 한다고 칭찬하고 박수 쳐주니까 더 열심히 하고... 그런데 목말랐어요. 심지어는 선교지에서 한 영혼이 돌아오는데도 그다지 기쁘지 않았어요. 열매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사역결과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니 까 약간의 기쁨은 있지만 곧 허기졌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그러면 또 금방 허기지고...”

첻바퀴처럼 거듭되는 과정 가운데 자꾸 탈진해가는 스스로를 느꼈다. ‘이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을 살펴 봤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나서서 일하고 있었다. 한계가 느껴졌다. 일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음을 비로소 깨달았다. 따뜻한 구들장을 버리고 한 데를 찾아 선교사로 헌신한지 이미 10년이 다 되어가던 시점이었다. 그 동안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사역하면서 이슬람권에 교회도 개척하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이한 경험, 도우심도 수없이 맛보았다. KGB에 끌려가 조사를 받기도 했고 삶과 죽음의 갈림길을 온 몸으로 돌파하기도 했다. 현지 신문에 연일 등장할 정도로 골칫거리 취급을 받기도 했다. 그래도 사명으로 알고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그 것, 목마름은 여전했다. 정말 뭔가가 분명히 잘못되어 있었다.

“하나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듯 하는 게 잘 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굉장히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었어요. 선교사역에서도 지식, 사역 전략, 결과 등 어느 것에서도 지기 싫었어요. 싸움꾼처럼, 전사처럼...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깨달음은 곧 그의 생각과 자세를 바꿔놨다. 다시 시작했다. 본질로 돌아갔다. 일보다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 예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자리로 나아갔다.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그 분이 스스로 일하심을 알게 됐다. 단순하고 명확한 개념, 하지만 정작 그 일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자기도 모르게 옛 습관대로 하면서 실패를 거듭했다. 그런 과도기를 또 5-6년 이상 보냈다.

지금도 스스로 그런 것들을 교정해나가는 과정이라 여긴다. 그런 깨달음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외롭다.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그렇고, 엉뚱하게 구도의 길을 헤매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다.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핵심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짓말 않고 사기 치지 않으면 죄없다 생각하는데 이웃사랑 앎는 것,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많은 것, 다 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하고...사람들은 보화가 밭에 있으니까 사야 된다고 말합니다. 사야 돼! 헌신합시다! 라고. 옳긴 한데 옳지 않습니다. 그건 짐이고 수고입니다. 사람들에게 보화가 있음을 보여주면 자발적으로 사려고 합니다.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증인이란 보는 사람입니다. 보여주면 증인이 됩니다. 그런데 우린 자기도 보지 못했으면서 증인이 되라고 합니다. 리더가 요구하니깐. 그래서 해도 해도 힘듭니다. 공허합니다. 열매가 생기면 잠깐 기쁘지만 조금 있으면 또 공허해집니다. 하지만 보화를 보면 끝납니다.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사건을 목격한 사람은 증인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자꾸 일하라고 하니깐 하는 것, 그게 문제입니다.”

그의 설교에서 드러나는 본질과 핵심가치, 그 명료함과 자연스러움의 배경이 절로 느껴진다. 그런 깨달음이 바로 ‘울어라!’, ‘부르짖어라!’로 표출되는가 보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겁게 살아야 하는 건 아닐까요?”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즉각 대답이 튀어나온다.

“저도 그 부분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그건 값싼 복음, 값싼 은혜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죄 사함 받았다고 하면서도 자기 삶을 처절하게 돌이키는 과정은 생략하고 열매만 따먹으려고 합니다. 그 과정을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반복되는 죄와 함께 덩겁니다. 지옥을 경험한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죽어야 살 수 있습니다. 무슬림은 죽지 않고 부활합니다. 우리는 죽어야 부활합니다. 죽지 않고 부활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강조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가짜입니다. 고통의 과정이 없이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은 없습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슬퍼하며 애통하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약4:9) 이것이 됐을 때 시편 30:11절이 나옵니다. 슬픔이 춤이 되게 하고 베옷을 벗겨 기쁨으로 띠 띠 우시는 것... 그 과정을 생략하고 열매만 강조하는 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죄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회개 없

이 죄사함 받았다고? 웃기는 거지요. 레위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보면 얼마나 철저합니까? 제물을 불태우고, 씻고, 곡식을 빵고, 재를 만들고 가루를 내고, 아사셀 양을 멀리 떠나 보내고... 이게 뭐니까? 다 죄입니다. 하나님이 회개하지 마라고 하셨잖아요? 뜰만 밟는 자들이 나도 지쳤다. 회개 않고 회개했다고 하는데 네가 싫다. 이사야 1장 말씀입니다. 이 과정이 없어서 한국교회가 시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거침이 없다. 마치 깊이 감추어 두었던 속마음을 다 털어내려 작정한 듯 속사포처럼 이어진다. 거친 표현도 서슴지 않는다. 생명길을 버리고 엉뚱한 길을 헤매는 이들을 보는 답답한 심정 때문이리라. 그 스스로가 그런 길을 걸어왔으므로 뻘한 길을 앞에 두고 방향하는

이들에게 어찌 소리지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대화를 거듭할수록 그의 심플라이프가 느껴진다. 안정된 의사의 길을 버리고 선교사로 헌신한 계기도 단순하다.

“이 일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임을 깨달았죠. 다른 일하면서 하는 것은 최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제르바이잔을 택한 건 주변의 다른 나라는 다 선교사들이 있는데 이곳엔 없었기 때문이고요. 저는 결정을 쉽게 내려요. 많은 사람들이 신학을 할까 말까, 선교사로 헌신할까 말까 고민하는데 저는 단호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고민하면서 왜 하느냐?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때 해라. 그것이 문제로 보이지 않을 때, 찰 때까지 기다려라.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없어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어요. 중국, 소련을 보세요. 그리고 지금 아랍권국가들을 보세요. 이란에만 죽음을 각오한 기독교 신자가 최소 100만 명이예요. 복음의 문이 꼭 막혀있을 때, 도대체 누가 그 일을 하셨지요?”

선교를 부인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거룩함이 철저하게 바탕이 되어서 행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원칙이다.

“자신이 그 민족을 다 변화시키려고 하는 식의 선교는 안됩니다. 하나님 일을 하면서 자기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건 문제죠. 자기 힘으로 바꾸려고 하면 부작용이 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남이 혈통고 모함하고 자꾸 비난하면 어떻게 하죠? 수습하려고 자신이 손을 대면 덧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알면 그냥 그분께 의뢰하고 맡겨버리면 됩니다. 변명이나 저항할 필요도 없어요. 성령으로 하지 않는 열매는 열매처럼 보이지만 실은 열매가 아닙니다.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열매가 오히려 주님 앞에서 죄가 됩니다.”

물 흐르듯 자연스레 이어지는 그의 신학의 배경,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것이다. 때문에 그는 선교라



는 이름을 내걸고 돈 벌거나 사기치는 사람, 유명해지려는 사람들에 대해 전혀 대적하거나 상관하지 않는다. 예전엔 화가 났고 싸우고 싶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가 보다, 하나님이 하시겠지 모두 맡겨버린다. 한결 너그러워졌다. 나이 탓인가, 깨달음의 경지 때문인가...

그는 스스로를 돌팔이 의사라 부른다. 그런데 사실은 돌팔이 축에도 못 낀다. 스스로가 종합병원이므로. 간-목 디스크-축농증-천식-허리-발뒤꿈치 병-목 종양-역류성 식도염, 무릎이상...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압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어찌 보면 불편하고 힘든 일이고 재앙이지만 거꾸로 보면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기도할 때 재앙이 임했죠. 그 재앙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재앙과 영광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보게 되면 신앙생활을 훨씬 잘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에게 절망스러운 일이었겠죠. 사람들은 조롱하고, 아버지와 단절되고... 하지만 예수님은 사랑의 비밀을 아셨어요. 그걸로 넉넉히 이기셨습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비밀을 가진 자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걸 경험하지 않으면 알아요. 먹을 것 마실 것만 구하게 됩니다.”

선교단체 GO를 설립하게 된 계기도 단순하다.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했는데 10년 만에 어느새 60여명 선교사에 40명 전임자 등 100여명의 규모로 성장했다. 이슬람 선교에 집중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말씀이 있었어요. 계시적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꿈도 있었고 내적 감동도 있었고 예언적 메시지도 있었고 환상도 있었습니다. 원리주의자를 섬기는 일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그곳에선 기적이 흔합니다. 환상, 예언, 치유...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그 동안 한국교회에서 많이 이단시 하였는데 최근엔 폭넓게 이해를 하더군요. 아랍권에서 지금 엄청난 영적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프론트 라인에서의 일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답게 그의 열정이 뜨겁게 느껴진다. 그런데 그리 철저하게 자신을 내버리고 헌신함으로써 가정은 어떻게 건사하는지 공연히 걱정 됐다.

“가족들은....?”

그가 얼른 내 생각을 알아차리고 전화기를 열어 카카오톡을 보여준다.

“어제 우리 GO 간사가 보낸 건데요. 아침 경건회 할 때 저희 둘째 아이가 나눈 얘기인데 너무 감동했대요.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른다. 교회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르치기만 하지 오늘날 하나님에 대하여 잘 가르치지 않는다. 이것이 나빠 보이지는 않지만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 사탄에게 속고 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전도하라는 건 모순이다. 자기 의로 하나님을 전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모르고 전하는 것은 자기 의로 일하는 것이다. 이것은 죄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한다. 자기부인 않으면 우린 망한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주님 뜻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죽는 것이다.”



이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19살 아이의 신앙관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핵심을 꿰뚫고 있다. 아이의 해안에 입을 다물 수 없다. 그가 만면에 미소 지으며 구태여 전화기를 고집어내어 보여주는 이유를 알 것 같다. 그래도 괜히 뭔가 꼬투리를 들춰내고 싶은 까탈스럽고 고약한 심사가 발동했다. 제대로 벌어도 못하고 가족들 생 고생시키는 거 아닌가 싶어서.

“부인은 다 이해를 하시나요?”

다시 그의 입이 짝 벌어지며 안주머니에 넣으려던 전화기를 다시 고집어 냈다. 손가락을 바빠 움직이더니, “이것 좀 보세요. 우린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카톡을 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주님 사랑하는 남편이 마지막 전쟁에 (그레이스 교회 청년부 주일 설교) 교만하지 않게, 끝까지 주님을 구하게 하소서. 더 큰 주의 임재와 성령의 행하심을 사모하며 무릎 꿇어 무익한 종임을 고백하게 하소서. 안식일에 섬기는 교회에 복을 주시고 열방과 조국을 위해 눈물로 부르짖게 하소서. 여기에도 또 있어요. 이걸 어제 보낸 건데요.

오늘 결혼22주년이네요 하루를 천 년 같이 당신과 함께 소중하게 보내고 싶어요. 오직 그 길은 편한 길을 버리고 당신과 나의 길을 버리고 성령이 이끄시는 길을 가고 싶어요. 이것이 나의 부탁이고 소원이랍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져버렸다. 그의 표현대로 자신보다 더 믿음 좋은 아내와 신앙 안에서 든든히 커나가는 자녀들에게서 그의 사역 때문에 희생당하고 있다는 어떤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닭살 부부라는 생각도 전혀 안 들었다. 서로를 세워주는 든든한 동역자로서 함께 헤쳐 나가는 순례자의 삶이 물씬 느껴졌다. 어쩌면 그의 열정적인 사역의 원천은 그런 든든한 가정 안에서 비롯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가정은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실천무대이므로. ♣ [김영규 기자]